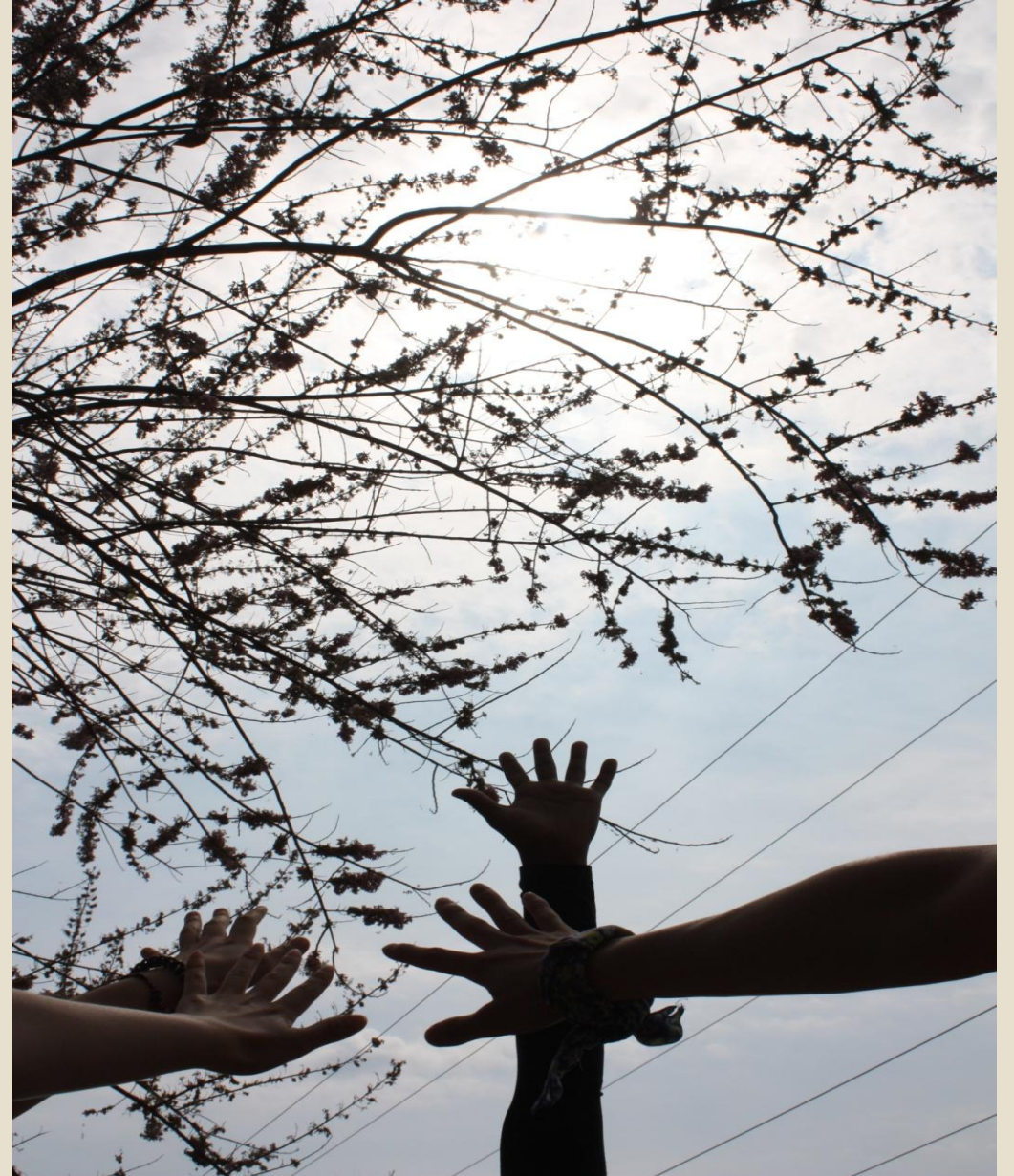


# Shuvorattri

## 2015 March report

길태오, 김혜련, 정기용, 최현희  
Shetu, Tuli, Shuvro, Khushi



# 목차



월간일정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가렇게살아요  
소감

# 월간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방글라데시 다카 도착!	6 사바르 YMCA 방문 다카 시내 구경	7 Off day
8 방글라데시 공부 (벵골어, 역사, 노래)	9 방글라데시 공부2 John 교회, 집 방문	10 방글라데시 공부3 책 구입 목록 회의	11 다카 YMCA 방문 Library를 위한 책 구입	12 National memorial park 탐방 사바르 YMCA youth 만남	13 비리시리 도착! 😊	14 결혼식 전야제 참석
15 결혼식 참석 무슬림 축제 쓰레기통 설치	16 Cleaning 참여 (Hospital & Market)	17 Father of the nation Bangabundhu's Birthday 자전거 연습	18 다하파라 방문 Tuhin집 방문	19 지역기관 방문 (GBC, Garo cultural museum)	20 호스트 편지,선물 전달 YMCA Youth meeting	21 Nipun 총장님 만남
22 DRR 교육 (with Biplop, Sibani)	23 솔보꼬르니아 마을 방문 창고 청소 및 정리	24 다하파라 방문 Sibani 만남	25 벵골어 공부 두르가푸르 시장 정기회의	26 Independence National day 결혼식 참석 Biplop 집 방문	27 ICS workshop 참여	28 ST.Candida hostel 방문
29 벵골어 공부	30 다하파라 방문 ICS와 문화교류 (영국,한국,방글라데시)	31 3월 돌이켜보기, 4월 일정 계획				



# Shetu

## 팀원소개

## 활동내용

## 우리 이렇게 살아요

## 소감

이름 : **길태오**

(세뚜 - 여자이름.. 심지어 마을에 동명이인 아주머니도 계심)

나이 : 스물네살한테 지는 위엄없는 스물여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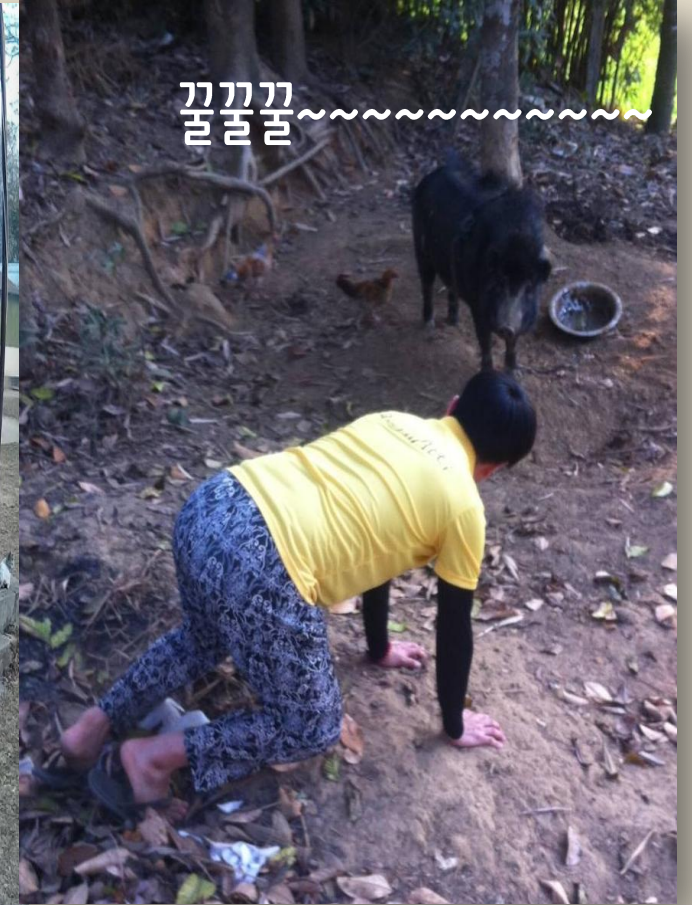
팀내 서열 : 4위

별명 : 슈꼬르 (돼지 꿀꿀)

취미 : 팀원들 놀리기, 한번 잠들면 안 일어나기, 노래 듣는 척 하면서 잠들기, 생각하는 척 하면서 잠들기

특기 : 방글라데시 도착하자마자 현지인 되기, 항상 방긋 웃는 모습이 보기 좋은 에너지 가이 (하하하)

3월 팀내 역할 : 총무 (팀원 4명 회비 관리 못하는 경제학도)





# Tuli

## 팀원소개

## 활동내용

## 우리 이렇게 살아요

## 소감

이름 : **김혜련**

(툴리 - 뱃골어로 붓(Brush)이라는데.. 왜??)

나이 : 26살 잡아먹는 24살

팀내 서열 : 독보적 1등

별명 : 일본 아주머니

취미 : 당황하면 아무한테나 중국어 하기, 장기하 출추기

특기 : 다이어트한다면서 튀김 마구 집어먹기 그리고 2시간 운동하기

(빅맥 라지세트에 콜라는 다이어트 콜라?)

3월 팀내 역할 : 사진관리



▲ 김혜련 아주머니(일본에서 오신 총의 달인)

# Shuvro

## 팀원소개

## 활동내용

## 우리 이렇게 살아요

## 소감

이름 : **정기용** (슈브로 : 흰색)

나이 : 25살

팀 내 서열 : 3위 (3위지만 유도선수 경험이 있어 모두가 두려워 함)

별명 : 간사님

취미 :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접속하기

특기 : 마을 사람들 이름 외우기, 현지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속성을 고려하여 일 진행하기,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하기, 자원활동만 생각하면 역할고민에 가슴이 답답해짐

3월 팀 내 역할 : 리더





# Khush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이름 : **최현희** (쿠쉬 : 행복)

나이 : 25살 (정신연령은 52살)

팀내 서열 : 2등( 0순위라 주장하지만 택도 없음)

별명 : 보까 (바보)

취미 : 내려놓기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러지 못함)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기

특기 : 항상 부어있는 두 뺨, 5초안에 울기, 벌레보고 울기, 자전거 타면서 울기

3월 팀내 역할 :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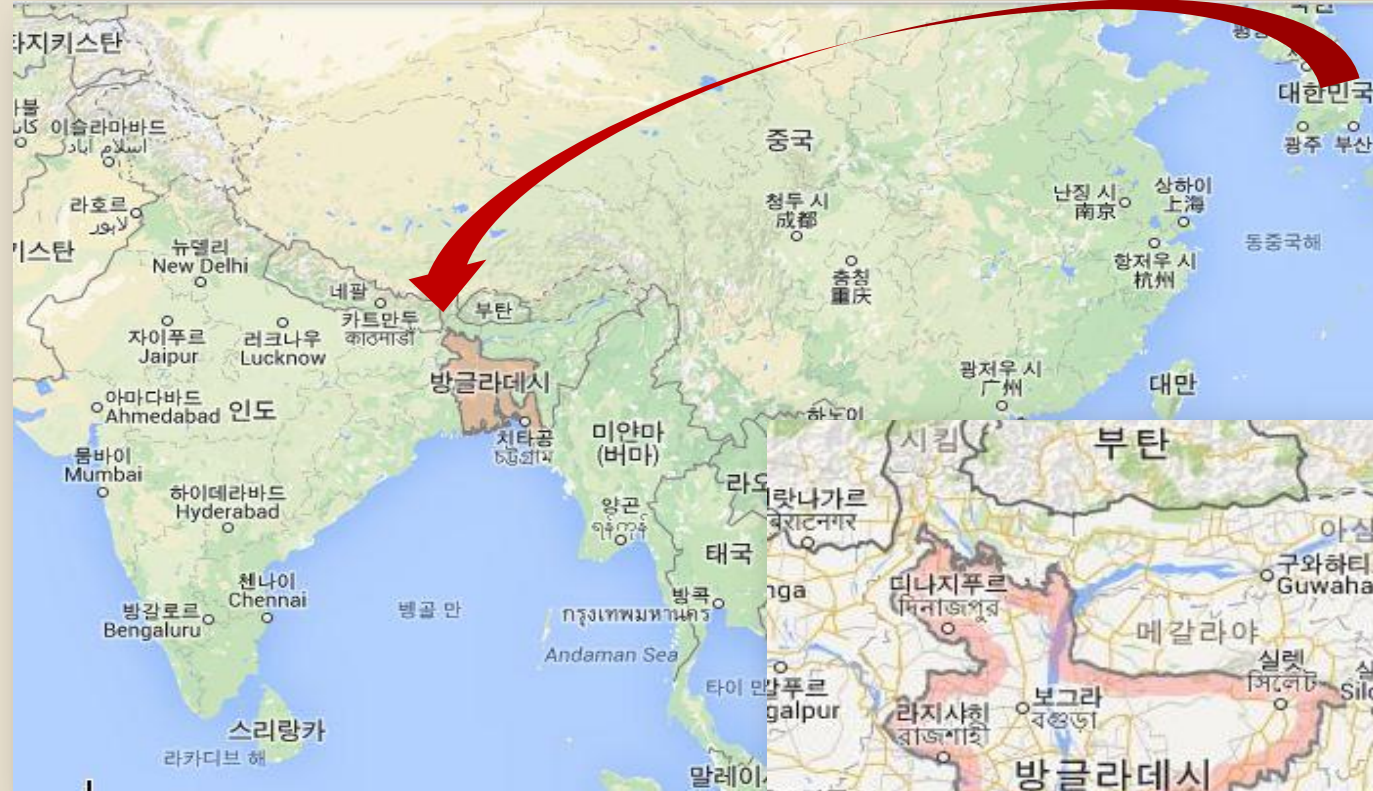


---

# 활동내용

---

# DHAKA





## 다카 YMCA 방문 15.03.11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위치한 YMCA에 방문하였습니다.

Nipun 총장님과 DRR(disaster risk requestion and health)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글라데시 지역YMCA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YMCA의 역할을 알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특히, DRR project와 350PPM과의 연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활동방향에 대해 고민 해볼 수 있었습니다.



# D h a k a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사바르 YMCA 방문 15.03.06

사바르 YMCA에 방문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라온아피를 소개함으로써 현지인과 더욱 친해 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YMCA사람들과 즐겁게 티타임을 가지며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하고 톡톡이 기초회화를 배우곤 했습니다.





## 10기 슈보 단원만남 15.03.06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일하고 있는 10기 슈보 단원이 직접 사바르 트레이닝 센터에 방문해 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려주고 더불어 모자와 현지 과자로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었던 시간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방글라데시 공부** 15.03.08~10  
3일간 Alex da에게 방글라데시에 대한 역사, 언어,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위한 투쟁, 언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을 알아감으로써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D h a k a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현지 코디네이터 John의 집과 교회 방문 15.03.09

YMCA를 벗어나 마을공동체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즐기며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존의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어질 만큼 따스한 시간이었습니다.



# D h a k a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National memorial park 견학 15.03.12

다카에서의 마지막 날, 존의 교회에서 보았던 친근한 친구들과 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장소를 견학하며 독립에 대한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더불어 현지 친구들과 함께 노래부르고 시장도 구경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 D h a k a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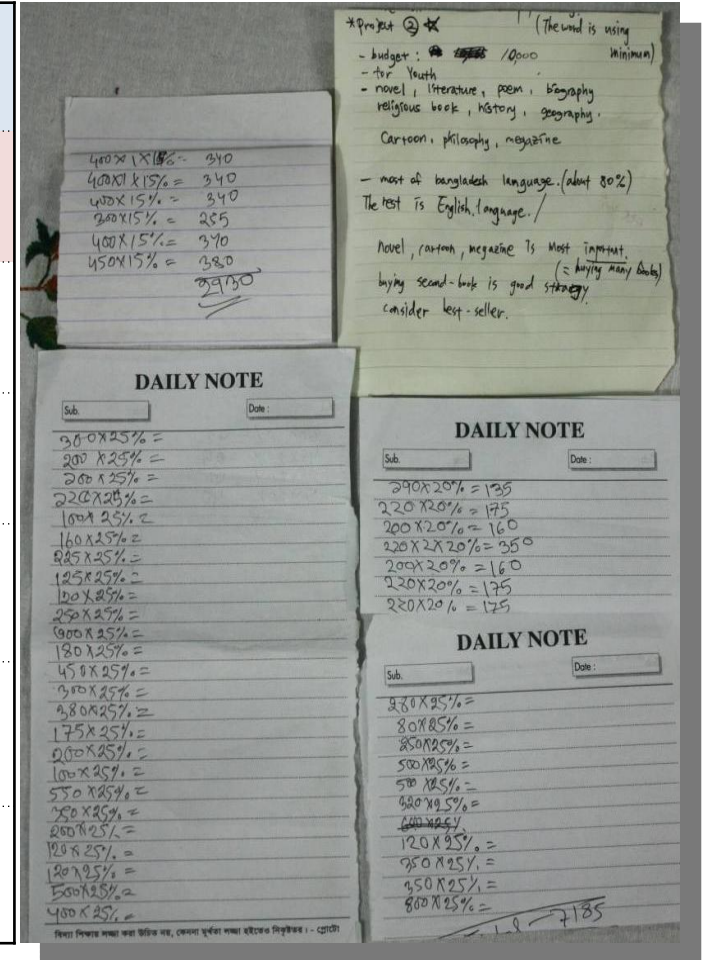


## 도서관 준비, 책 구입 15.03.11

비리시리 YMCA 내 도서관 설립을 위해 6일에 미리 사전조사를 하였고, 북마켓에 재방문하여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오기 전, 한국에서의 전통매듭 팔찌 판매수익으로 예산을 마련하였고 시장에서는 “오넥 다미~”를 외치며 흥정하여 알뜰하게 구입하였어요.

# 전통매듭팔찌 판매수익 책 구입 내역

비리시리 도서관					
날짜	내용	지출금액	수입	잔액	비고
02월 13일	팔찌 수입		19만원	19만원	5천원 X 38개
	팔찌 재료	4만원			
	달러 환전			\$136	$(1102 * 135) + 1120 = 150000$
03월 06일	다카 환전			10278	$(76.5 * 100) + (73 * 36)$
03월 11일	책 구입	9066		1212	추후 책 구입 (한권에 평균 400다카)



\* 팔찌를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Activity Region

---

# BIRISIRI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결혼식** 15.03.15/26  
꽃이 피는 3월에는 결혼하기 좋은 계절☺ 결혼식에 두 번이나 참석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런 두런 모여 음식도 나누고 선물을 건네며 축하하는 가로문화를 경험했어요.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클리닝 15.03.16

비리시리 YMCA와 YWCA, ICS, 라온아띠가 모두 모여 함께한 마을대청소 시간!

이날은 시장과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모았어요. 비리시리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따로 마련 되어있지 않아서 쓰레기를 모두 모아 소각해야 했습니다.

소각할 때의 환경문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앞으로의 활동에 반영해보아야겠어요.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다하파라 방문 15.03.18/24/26

다하파라 학교는 비리시리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비리시리에서 약7km 정도 떨어져있는 이 마을에 우리들은 앞으로 주3회 수업을 진행할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연습도 하고 마을 구경도 하기 위해서 다하파라를 방문하였어요. 비포장도로와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리샤, 노란 덤프트럭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이 용기를 주고 있어요! ☺ 세번째 방문때는 아이들과 수건 돌리기,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놀이를 함께 하였습니다.



# Birisir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지역기관방문-GBC, Garo cultural museum 15.03.19

지역기관을 방문하여 비리시리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가로족에 대해 직접 듣고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뮤지엄에서는 가로족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었어요. 가로 독립운동가 부터 전통의상, 생활소품 등을 볼 수 있었고 이 곳에서는 academy도 운영하여 가로 전통춤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쿨쉬와 툴리의 춤바람이 예상되는……?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지역커뮤니티-솔뽕꼬르니아 마을 방문 15.03.23

Y에서 진행중인 DRR 프로젝트 겸 솔뽕꼬르니아 마을에 Sibani와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유난히 뛰어 노는 아이들이 많이 보이고 평화로운 논이 가득한 마을이었어요. DRR 담당자, Sibani는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위해 첫 모임을 진행하였고 이 날은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지역커뮤니티-비플롭, 뜨윈집 방문 15.03.18/26

비리시리 YMCA General Secretary, Biplop과 YMCA에서 늘 함께해주시는 Tuhin 아저씨의 집에 방문 하였습니다. 짜도 마시고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누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Biplop da의 아들, Max의 귀여움 반해서 녀을 잃고, Tuhin da의 집 앞 푸르른 나무들과 자연 풍경에 다시 녀을 잃고 말았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선물 전달 15.03.20

방글라데시팀의 이전기수들이 호스트 패밀리와 친했던 유스들에게 전하는 선물과 편지를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또 한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ICS Workshop 참여 15.03.27

3월의 비리시리 YMCA는 늘 파란눈의 영국 친구들과 방글라의 청년들 17명으로 복작복작했어요. 영국 정부에서 만든 ICS 프로그램은 10주 동안 비리시리에 머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라온아피도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함께 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건강과 환경을 주제로 유스들에게 정보를 주고 함께 조를 짜서 토론도 하고 간단한 게임도 했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ICS와 문화교류 15.03.30

ICS 친구들과 영국, 방글라데시, 한국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게임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닭싸움을 소개하였고 달고나를 만들어서 나누었습니다. 달고나를 만들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모자모자~, 딜리셔스”하며 먹어주는 친구들 덕에 동심으로 돌아간듯 오랜만에 많이 웃고 뛰어 놀았던 날이었습니다.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유스미팅 15.03.20

방글라데시 라온아피 팀을 늘 자기일처럼 도와주는 고마운 Youth들, 그들과의 첫 단체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라온아피 멤버들에 대한 각자 소개와 더불어,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며 유스들 보다 우리가 더욱 즐겨버린 시간이 되었어요. 특히 못 보던 얼굴들을 모두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웠답니다. 또한 앞으로 활동에 대한 간단한 토론을 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 B i r i s i r 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DRR 교육 15.03.22

Biplop에게 DRR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음으로써 방글라데시의 기후환경과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이상현상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Flash Flood(일종의 홍수)가 발생하면 한 시간 내 마을 전체가 떠내려가고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떨어지는 등 이상 기후들을 이곳에서 경험할 생각을 하니 조금 무섭기도 했고 환경에 대해 다시 고민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DRR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YMCA의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 About Birisir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정전, 양초, 손빨래, 아궁이,  
자전거, 먼지

생활

레인트리, 별, 논, 벌레, 별, 슴상강

자연

하루에 정전 세 번은 일상이다.☺ 하하.. 비가 오는 날엔 어둠 속에서 살기도 하고 씻다가 물이 끊기기도 하고 날이 맑으면 모두들 밀린 빨래를 한다. 아궁이에 불을 피워 요리를 하기 때문에 연기에 눈이 아프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신 음식은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곳은 진정한 라온아띠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

비리시리

동물

꾸꾸루(개), 슈꼬르(돼지),  
고루(소), 소똥, 차골(염소),  
무르기(닭), 비랄(고양이)

많은 동물들이 늘 주변에 있어요 ☺



슈보라프리티팀이 모두 좋아하는 “Raintree” 비리시리에는 보통 100년 이상 된 비나무가 많다. 저녁 7시만 되면 하늘에 별이 가득하고 끝없이 펼쳐진 논길을 볼 때면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져온다. 많은 동물들, 아마 비리시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러한 대자연이 아닐까?



# About Birisiri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짜, 짬, 청포도, 코코넛, 카레, 과자**



**음식**

방글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호식품, 짬. 호두 같은 견과류를 짬잎에 싸서 먹는다. 아주 짬은 맛이 나고 자주 먹으면 이빨이 빨개진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고 몸에는 좋지 않다.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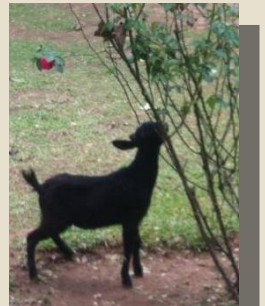
**손으로 밥먹기, 룡기, 시장 갈땐 스카프, Yellow monster, 오토릭샤, 크리켓, 배드민턴, 무슬림 기도시간, 크리스천 가로족**

**비리시리**



비리시리에는 벽돌을 만드는 곳이 있어서 이것을 운반하는 노란 덤프트럭이 자주 다니는데 매우 크고 한번 지나가면 엄청난 먼지 폭풍을 일으키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Yellow monster라고 부른다.

남녀노소 크리켓을 엄청!!!!좋아하고 방글라 크리켓 경기가 있으면 일하다가도 TV 앞으로 모인다. 비리시리의 주된 교통수단은 릭샤이다. 특히 오토릭샤는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운전수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썩썩 달린다. 한번 타보면 그 스릴감에 계속 타고 싶어진다.



# 이달의 발로본두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Rubel

**이 달의 발로본두 루벨!!**  
위 사람은 기별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오갈 데 없는 외로운 우리 4명을 매일 돌봐주었으며, 어설피 한국어 실력이지만 기운 빠져있는 우리를 웃게 해주는 그의 배려에 감동해 루벨을 이 달의 발로본두로 선정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 일정을 위해 앞으로도 짝리에 자우 루벨!

“왜이렇게!!! 세뚜형~”



# 이달의 발로본두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Mojesh

**이 달의 발로본두 모제스!!**

위 사람은 특유의 유머러스한 감각으로 YMCA 활동에 재간둥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특히 본인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외모로 같이 있으면 자연스레 우리를 동안으로 만들어 주었기에 이 달의 발로본두로 선정합니다.

앞으로 다카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 큰 사람이 되기를 13기 모두 희망합니다.

모제스 벌써 보고싶다~~~~~

# March Episode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피해자 사진 : 쿠쉬 ( 한국인 : 25세)

사건번호 : 1721호 (주거침입)

가해자 : 벌레

피해자 : 쿠쉬 (한국이름 : 최 현 희)

시간 : 2015년 3월 15일 오후 7시경

장소 : 방글라데시 내 한적한 비리시리 YMCA 숙소

사건 전개 :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해 끈질지게 대쉬를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질겁하며 눈물을 보였고, 가해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서둘러 자리를 도망 간 사건

당시 심정 : 저는 원래 벌레를 하나도 안무서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구더기 떼를 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타를 치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자꾸만 그 악당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의 일부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결말 : 가해자들을 모두 자연으로 방생한 후, 사건 종료



# March Episode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사건현장(이름 모를 구덩이)

사건번호 : 1722호 (교통사고)

피해자 : 쿠쉬 (한국이름 : 최 현 희)

시간 : 2015년 3월 30일 오후 1시경

장소 : 다하파라 학교를 다녀오는 길의 어느 이름 없는 구덩이

사건 전개 : 평소 다하파라를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무서워했던 쿠쉬 (본인)는 이 날도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Y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다. 하지만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자전거가 모래에 미끄러졌고, 이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옆쪽의 구덩이로 떨어진 사건이다.

당시 심정 : 이게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 생각해서, 사고가 나는 순간 속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사히 굴러 떨어진 순간 살아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살아남아서 Y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 사실 전 그때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순간 빠듯한 정도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발을 헛딛고 나무를 붙잡으려던 손이 그냥 나뭇잎을 스치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거 큰일났구나.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할 새도 없이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기계체조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어요.(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던 세투)

결말 : 큰 사고임에도 본인의 강철같은 몸으로 버텨내 타박상으로 그친 운이 좋았던 사건.

# 인생과자, “미스터쿠키”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미스터쿠키  
너란 녀석은 정말...  
하... 달짝지근하면서  
때로는 바삭바삭하고  
지친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랑스러운  
녀석

반 오십 인생  
가장 맛있는  
과자를 만났다.  
인생과자,  
미스터쿠키!



**방글라데시에는 행복의 나라가 아니다.  
사실 과자의 나라다.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매일 밤 상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매일 밤 과자로 행복을 배운다.**



# 소소한 이야기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옆방 교수님

이름 : 칸

직업 : 다카 모 여대 사회학 교수님

취미 : 포옹, 악수

자주 하는 말 : 브라더(brother)(ex:슈브로 브라더, 세투 브라더)

특징 : 평소에도 넘치던 애정이 우리가 생일파티를 해드린 이후로 곱절이 되어 가끔씩 부담스러운 애정을 표현해주신다.

수도 다카에 아주 큰 집(Big house)이 있다고 무조건 놀러오라고 하신다.

매일 밤 아들과의 통화에서 살가운 애교를 보여주신다.

▲ 촬영협조 : 표정 어두운 슈브로

# 소소한 이야기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이사도라 아저씨** (24시간 돌아다니는 아저씨)

이름 : ???

직업 : ???

취미 : ???

자주 하는 말 : 발로? 발로!(좋아? 좋아!), 끊임 없이 무언가 말하시는데 무슨말인지 우리가 모름, 현지인도 모름, 아무도 모름

특징 : 어디를 가든 우리를 따라와주는 아저씨, 시장에서 일행을 찾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알고보면 패셔니스타, 한번씩 과자나 바나나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해주신다.



# 활동고민, 생활고민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언어

영어 소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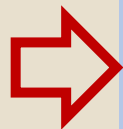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과 대화 할 때 한,두 사람이 소통을 담당하다보니 상대방이 의견이나 의사결정을 바로 요구할 때, 소통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된다. 그래서 팀의 의견이라기 보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 될 때가 있다.

반면, 평소 사무적인 이유로 사람을 많이 만나다보니 힘이 든다. 또한,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 회의 때 집중하느라, 팀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느라 정신이 없다.

영어가 힘든 팀원

회의시간에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소통이 힘들어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으며, 정보가 한쪽으로 쏠림에 따라 상대적 소홀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팀원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는 마음에 물어보지 못하게 되어 상황을 자세히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인 영어로 인해 팀원들의 소통이 안되고 더불어 팀원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거나 벽이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영어 소통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다른 팀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 서로 도와주고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 활동고민, 생활고민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팀원들 간의 다름에 대한 몇가지 물음들

- ▶ 팀원들의 가치관, 성향, 생활패턴, 체력, 의견 등이 완전히 다른 4명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 ▶ 팀의 활동이나 결과물에 있어 효율성, 형평성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 형평성을 팀에 있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효율성을 중시하는 활동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늘 모두가 함께 가려고만 해야 하는 것일까?
- ▶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말이다. 나, 팀, 라온아띠, YMCA, 이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출했을 때 팀원들과 부딪히는 부분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 ▶ 팀원을 이해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다른 것 같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에 대해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 다름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 세뚜\_레오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영원할 것 같았던 3월 한 달이 지나갔다. 3월의 비리시리는 나에게 강렬했던 태양의 햇살만큼이나 강하게 다가왔다.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 귀여운 아이들 하나하나 이곳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비리시리에 오자마자 내가 현지인이 되 버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도 모르겠다. 이제 4월이 된 시점에서 지난 3월을 돌이켜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참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다는 것. 하루하루 새롭고 신기한 일들만 가득해서 인지 일주일이 꼭 한국의 한달 같았고, 매일 침대에 누우면 아무 고민 없이 숙면을 취했다. 매일 매일 새롭고 신나는 날이었다.

이번 달 우리 팀은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보다 그저 사람들을 알아가고 팀원들을 알아가는 것에 노력했는데, 그래서인지 우연히 필리핀 호스텔 수녀님을 만나게 된 것도, 비리시리의 많은 사람들과 친해진 것도 비워야만 채울 수 있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팀원들끼리 협력해 더욱 더 재밌게 놀면서 즐기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 폴리\_혜련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방글라데시에 온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곳에서 난 모든 것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조금씩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난 이곳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있다. 여기 사람들은 사람을 참 좋아하는 듯 보인다. 늘 밝은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나에게 있어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었던가. 돌이켜보면 난 내 위주의 삶의 굴레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사람과 그 사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한 적 또한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고 사람을 통한 가슴 따뜻해짐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 사람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 또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김새, 언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겐 최선을, 나에게엔 이곳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서야 첫발을 떼기 분이다. 사람이 좋아지니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좋다. 이전보다 활력도 되찾았고, 모든 활동이 흥미로워졌다. 앞으로 남은 기간,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된다. 나에게 삼월은 그들이 나를 다시 기억했을 때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한 달이었다.



# 슈브로\_기용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매일 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들을 했었지만, 한사람 한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들을 보니 고민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더욱 진심을 담아야겠다.

완전히 다른 4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국내훈련 때는 보지 못했던 팀원들의 모습들과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본래 나의 모습이었던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 팀 보다는 나만 생각하려는 이기적인 성향도 있었다. 한국에 있었다면 계속 알지 못했을 나의 부족한 부분과 변화하기 싫은 모습들을 팀원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걱정들을 하기보다는 오늘을 즐기려고 노력하려 한다.

# 쿠쉬\_현희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지난 한달 동안은 하루하루가 짝 차 있는 느낌이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해서 엮을까? 그야말로 나를 시간의 흐름 속에 온전히 내던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많이 깨졌기 때문이다. 나는 나에게 대해 나름대로 잘 안다고 자만했었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로써 함께하는 행복을 느껴보고 싶었다.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낯선 곳에서 살아보고 싶던 소망이 이루어졌기에 자신이 있었고, 적응력 하나는 뛰어나다고 믿었다.

그런데 웬걸, 오자마자 현지인처럼 적응한 다른 팀원들에 비해 난 모든 것이 더뎠다. 체력이 많이 부족했고 더위, 음식, 화장실 등 생각보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평소에 무서워 하지도 않던 벌레가 침대에서, 벽면에서 기어 나오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다하파라를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탈 때는 오토바이, 리샤 등이 역주행해서 생명을 위협해 오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은 항상 무서웠고 다리에 힘이 계속 풀리고 정신이 혼미했다. 초반엔 참 많이도 울었다. 이렇게 뒤쳐지는 모습에 팀원들한테 미안했다. 예민하고 적응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 그냥 일상이 늘 도전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깨질 때 마다 당황스러웠고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YMCA 중앙에 있는 커다란 레인트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밤이 되면 하늘에 별들을 보며 마음을 다독였다. 돌이켜보니 나는 초심을 잊고 있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잘먹고 잘자고 잘싸고 씻을 수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리고 때때로 약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도 그냥 인정하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는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게 시작일테니까.



# 쿠쉬 - 현희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팀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들은 계속 간직했다가 나에게 여유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그때의 마음을 스며들도록 하고 싶다. 우리 넷은 알면 알수록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이유를 모른 채, 답답했던 적도 많았고 모두들 처음 겪는 갈등상황에서 촛불을 켜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았다. 그렇지만 그냥 풀리, 슈브로, 세뚜를 있는 그대로, '아 이런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참 좋다. 다른 면을 거울처럼 비추며 성장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나의 방글라 이름은 '쿠쉬', 행복이라는 뜻이다. 행복에 대해 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었으련지... 그냥 짜를 마시고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가지를 보는 것도 좋고 염소, 고양이 동물들도 좋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좋고 친절하고 여유로움도 좋다. 현지 사람들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언어가 달라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이 느껴질 때 마다 행복하다.

지칠수록 웃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낮아져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신기하게도 안보이기 시작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처럼 조금이라도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다. 그 덕에 친구가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관심,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심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여기서는 정전이 되면 비상전력을 틀기 위해 발전기를 돌리는데 그 소리가 "두두두두두둑!" 매우 요란스럽다. 하지만 처음만 그렇지 그 다음엔 꼭 필요한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나는 원래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많이 서툰 사람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렇지만 점점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질 것이다. 내 안의 사랑과 믿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면 그 따뜻한 마음이, 진심이 분명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있고 진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의 4개월이 기대된다! ☺ "아미 에콘 쿠쉬" (나는 지금 행복해요)

---

# 사진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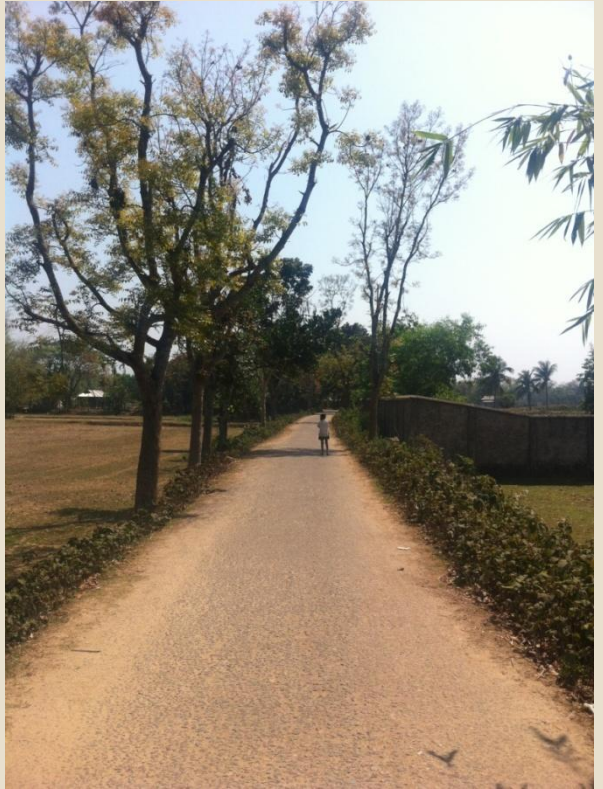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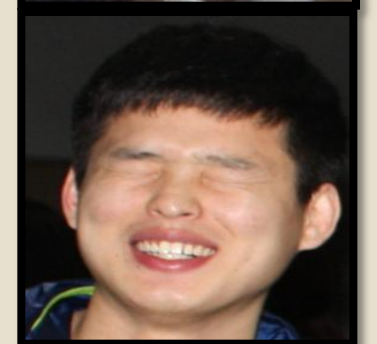
# 이달의 벙골어 한마디

শুভরাত্রি


Shuvorattri

[슈보라뜨리] : 잘자요~

•어디서든 잘자고 잠자는게 제일 좋은 13기 방팀의  
이름은 슈보라뜨리 ☺







আবার দেখা হবে  
아바르 데카 호씨  
(다시 만나요)